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1.8.4

걱정의 벽을 오르며 사상 최고치 근접

서상영 sangyoung.seo@miraes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상승 출발 했으나,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및 경기 회복 속도 둔화 우려로 매물 출회되며 하락 전환 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
- 그러나 장중 미국 2분기 빛이 크게 증가해 가계 부채가 15조 달러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오히려 견고한 유동성을 의미해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상승 전환 성공
- 특히 걱정의 벽을 뒤로하고 적극적인 매수세와 일부 개별 기업들의 호재도 영향
- 금융, 산업재,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게임, 여행, 레저 등은 부진
- 다우 +0.80%, 나스닥 +0.55%, S&P500 +0.82%, 러셀2000 +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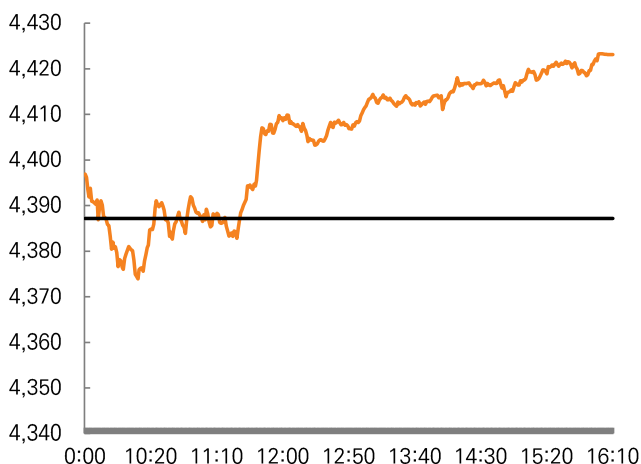
특이 종목

- AMD(+3.62%)는 쏘림 현상과 엔비디아(+0.33%)의 ARM 인수 불확실성으로 상승
- 마이크론(+4.15%)은 주가가 높을 때는 처음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강세.
- 로빈후드(+24.20%)는 일부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전망에 힘입어 급등.
- 애플(+1.26%)은 광고부문이 점차 수익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
- 블라자드(-3.54%), EA(-2.99%) 등 게임주는 중국 정부의 게임산업 규제 우려로 하락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1.49%, MSCI 신흥 지수 ETF는 0.42%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49.11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소폭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33% 상승. KOSPI는 0.3%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 미 증시는 코로나 이슈에도 불구하고 걱정의 벽을 오르며 상승 전환한 점은 긍정적. 이는 일부 하락 요인으로 조정을 보인다고 해도 적극적인 반발 매수세 유입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 이는 1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자들과 투자하지 않는 사람과의 경제 낙관 지수의 격차가 20년내 최고치인 17.3을 기록한 점을 통해 알 수 있음
- 한국 증시 또한 이러한 경향이 높아 상승 출발 후 중국의 코로나 이슈, 차이신 서비스업지수 그리고 일부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 변화가 예상

S&P500 일중 차트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3,237.14	+0.44	홍콩항생	26,194.82	-0.16
KOSDAQ	1,036.11	-0.16	영국	7,105.72	+0.34
DOW	35,116.40	+0.80	독일	15,555.08	-0.09
NASDAQ	14,761.29	+0.55	프랑스	6,723.81	+0.72
S&P 500	4,423.15	+0.82	스페인	8,772.80	+0.16
상하이종합	3,447.99	-0.47	그리스	895.19	-0.25
일본	27,641.83	-0.50	이탈리아	25,356.15	+0.02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① 코로나 우려 ②AMD의 힘 ③ 빗투 급증

미 증시 장 초반에는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경기 회복 속도 둔화와 더불어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하락. 특히 미국의 경우 주간 평균 신규 확진자수가 1만건 초반을 기록했던 6월말 기록을 크게 상회하며 현재는 주간 평균으로 8만건 가까이 기록하는 등 급증한 점이 부담. 더 나아가 중국 우한 지역에서 15개월 만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북경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점도 투자심리 위축 요인. 최근 아시아 지역 코로나 확산이 이어지자 경기 회복 속도 둔화 가능성이 더욱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추정.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미 증시에서 여행, 호텔, 레저 업종에 대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더불어 중국 국무원 판공청이 최근 사교육 규제 지침인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학업 및 사교육 부담 경감 의견>의 내용에서 전자제품의 사용 시간 제한 및 게임 중독 방지를 언급. 이를 바탕으로 규제 심화 이슈가 재 부각되면서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급락하고 미국 게임주가 약세를 보이는 등 개별 산업 또한 부진

그렇지만 연일 급등하고 있던 AMD(+3.62%)가 시장의 쏠림 현상이 유입되며 상승폭을 확대되자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 매수세 유입. 시장에서는 AMD의 상승은 견고한 실적 발표 및 가이드스 상향 조정 그리고 과거 데이터 센터 시장 점유율이 매우 낮았으나 관련 산업에서 모멘텀을 얻고 있다는 점이 최근 급등 요인. CEO인 리사 수는 컨퍼런스콜에서 “데이터 센터가 비즈니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매우 유리한 조합이 되었다” 라고 주장하고 내년까지 타이트한 공급과 강력한 성장을 전망. 더불어 신규고객으로 테슬라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구글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확보한 점도 긍정적인 요인

이러한 개별적인 기업들의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주식시장은 걱정의 벽을 오르며 상승 전환에 성공. 특히 최근 급락했던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등 경기 회복 속도 둔화 우려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자 금융과 산업재, 에너지 업종은 물론 일부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투자심리 개선.

결국 미 증시는 장 초반 코로나로 인한 경기 회복 속도 둔화 이슈 및 중국 정부의 규제에 따른 매물이 출회 되기는 했으나, 오후 들어 유동성에 의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한 점이 특징. 실제 미국 가계 부채는 2분기에 3,130억 달러가 증가해 15조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증가는 2007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 이러한 가계 부채 급증은 주택 담보대출 급증도 있었으나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의 급증을 이야기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의미하는 요인으로 작용. 실제 관련 소식이 전해진 미국 현지시각 11시 이후 미 증시가 본격적인 상승을 했음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AMD 강세 지속

AMD(+3.62%)는 쏘림 현상과 엔비디아(+0.33%)의 ARM 인수 불확실성으로 상승. 마이크로론(+4.15%)은 주가가 낮을때는 자사주 매입을, 높을때는 처음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강세. 더불어 8월 10일 리더십 포럼 참여에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도 긍정적. 로빈후드(+24.20%)는 전일 ARK인베스트가 매수한데 이어 일부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전망에 힘입어 급등. 애플(+1.26%)은 광고부문이 점차 수익 기반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 JP모건(+1.14%), BOA(+1.55%)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안정에 힘입어 상승. 캐터필라(+1.63%), 3M(+1.78%) 등 산업재 및 엑손모빌(+1.08%), 코노코필립스(+2.28%) 등 에너지 업종은 델타 변이 확산 불구 정부의 경기 부양 기대로 강세. SPG(+2.55%)는 실적 호전 특히 코로나 이전을 회복했다는 소식에 강세.

블라자드(-3.54%), EA(-2.99%), 테이크 투(-7.71%) 등 게임주는 중국 정부의 게임산업 규제 우려로 하락. 특히 테이크 투는 예상을 하회한 가이던스 발표로 낙폭이 컸음. 알리바바(-1.35%), 바이두(-1.51%), 텐센트 뮤직(-3.03%), 트립닷컴(-5.39%) 등 중국 기업들도 규제 우려로 하락. 반면, 고투테크에듀(+20.06%), 뉴 오리엔탈 교육(+2.30%), 탈 교육(+2.57%) 등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 피델리티 내셔널(-6.27%), 파이어브(-1.41%) 등은 전일에 이어 하락 지속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2.06	대형 가치주 ETF (IVE)	+0.90
에너지섹터 ETF (OIH)	+1.32	중형 가치주 ETF (IWS)	+0.73
소매업체 ETF (XRT)	+0.97	소형 가치주 ETF (IWN)	+0.83
온라인소매 ETF (IBUY)	-0.38	대형 성장주 ETF (VUG)	+0.56
금융섹터 ETF (XLF)	+1.12	중형 성장주 ETF (IWP)	+0.55
기술섹터 ETF (XLK)	+0.64	소형 성장주 ETF (IWO)	0.00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2.16	배당주 ETF (DVY)	+1.00
인터넷업체 ETF (FDN)	+0.34	신중국 고배당 ETF (DEM)	+0.90
리츠업체 ETF (XLRE)	+0.41	신중국 저변동성 ETF (EEMV)	+0.81
주택건설업체 ETF (XHB)	+1.65	미국 국채 ETF (IEF)	+0.03
바이오섹터 ETF (IBB)	+2.14	하이일드 ETF (JNK)	+0.03
헬스케어 ETF (XLV)	+1.39	물가연동채 ETF (TIP)	+0.09
곡물 ETF (DBA)	+0.37	Long/Short ETF (BTAL)	-0.17
반도체 ETF (SMH)	+0.91	모멘텀 ETF (MTUM)	+1.16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77.11	+1.83	+1.23	-5.79
헬스케어	1,562.97	+1.41	+2.24	+4.62
산업재	879.20	+1.38	+0.94	+1.64
금융	613.24	+1.13	+1.16	+1.44
소재	526.43	+1.01	+1.57	+2.65
경기소비재	1,453.69	+0.76	-1.16	-0.73
IT	2,702.04	+0.69	+0.62	+2.24
유틸리티	339.68	+0.61	-0.01	+3.90
필수소비재	740.21	+0.49	+0.02	+2.97
부동산	291.35	+0.44	-0.09	+3.28
통신	272.27	-0.19	-0.98	+1.25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중국 코로나, 차이신 서비스업지수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1.49%, MSCI 신흥 지수 ETF는 0.42%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149.11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소폭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33% 상승. KOSPI는 0.3%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상승 출발했지만 중국 증시 약세에 혼조세로 마감. 코스피의 경우 외국인의 현/선물 순매수 기조가 유입되며 장 후반 상승 전환에 성공. 이는 온세미컨덕터, NXP의 호실적 발표로 인한 주가 상승, 삼성전자의 전세계 반도체 매출 1위 탈환 및 파운드리 생산 가격 인상 등의 주요 기업 호재 이어지면서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그러나 코스닥의 경우 중국 정부의 게임산업 규제 가능성이 제기되자 관련 기업 중심으로 하락

이런 가운데 미 증시는 코로나 이슈에도 불구하고 걱정의 벽을 오르며 상승 전환한 점은 긍정적. 이는 일부 하락 요인으로 조정을 보인다고 해도 적극적인 반발 매수세 유입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 특히 미국 가계 부채가 15조 달러를 넘어서는 등 부채가 2분기에 급증했는데 이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투자자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 IBD/TIPP 경제낙관지수 세부 항목에서 1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자의 낙관지수는 65.4로, 투자를 하지 않는 투자자의 낙관지수는 기준선인 50을 하회한 48.1로 그 격차가 20년내 최고치인 17.3을 기록했기 때문

결국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경기 회복 속도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대한 낙관심리가 크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 경우 주식시장은 하락시 매수 심리가 커져 지수 하락폭은 제한되고 상승시 차익 매물 또한 높아질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요인에 따라 지수 변동성 확대와 종목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한국 증시 또한 이러한 경향이 높아 상승 출발 후 중국의 코로나 이슈, 차이신 서비스업지수 그리고 일부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 변화가 예상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경제 낙관지수 2월 이후 최저

미국 6월 공장주문은 지난달 발표(mom +2.3%) 보다는 둔화되었으나 예상(mom +0.8%)을 상회한 전월 대비 1.5% 증가. 내구재 출하량은 0.4%에서 1.0% 증가로 개선되었고 운송장비 출하량은 1.1%, 전기장비 및 가전제품 출하량은 전월 대비 1.0% 증가. 그러나 컴퓨터 및 전자제품 출하량은 전월 대비 0.2% 감소

8월 IBD/TIPP 경제 낙관지수는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은 53.6(-1.3%)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둔화. 6개월 경제 전망도 50.2(-1.2%)로 개인 재무 전망도 57.8(-3.2%)도 위축. 다만 정부 정책 지수는 52.9(+1.0%)로 상승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국제유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하락

국제유가는 중국 각 지역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자 수요 둔화 우려로 매물 출회되며 하락. 더불어 미국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증가하자 중국과 미국 경기 회복 속도 둔화 가능성이 확대된 점도 하락 요인. 특히 중국 정부가 코로나 신규 확진자 발생으로 일부 지역 봉쇄 단행도 부담.

달러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엔화가 강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경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혼조. 물론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진행되며 경기 회복 속도 둔화 가능성이 높았으나 공격적인 팬데믹 현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더 큰 모습. 한편, 호주 통화정책회의에서 매파적인 발표로 호주달러 및 뉴질랜드 달러는 강세를 보인 점도 특징

국채금리는 장 중 전일 하락이 과했다는 평가 속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여전히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상승분을 반납. 특히 미셸 보우만 연준이사가 고용시장이 팬데믹 영향에서 벗어나는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연준의 비둘기적인 통화정책 기대를 높인 점도 하락 요인.

금은 고용 보고서 발표를 기다리며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중국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로 매물 출회되며 하락. 곡물은 대부분의 주요 작황지에 비가 내리는 등 날씨의 영향으로 하락. 물론 러시아 밀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 상승 요인이 있었으나, 단기적으로 날씨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다는 점이 특징.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89% 하락한 반면, 철근은 0.77% 상승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0.56	-0.98	-1.52	Dollar Index	92.077	+0.03	-0.38
브렌트유	72.41	-0.66	-1.51	EUR/USD	1.1864	-0.05	+0.40
금	1,814.10	-0.44	+0.56	USD/JPY	109.06	-0.23	-0.66
은	25.58	+0.03	+3.79	GBP/USD	1.3915	+0.23	+0.26
알루미늄	2,586.00	-1.11	+3.86	USD/CHF	0.9041	-0.15	-1.14
전기동	9,541.50	-1.64	-2.22	AUD/USD	0.7393	+0.43	+0.42
아연	2,969.50	-2.66	-0.44	USD/CAD	1.2539	+0.23	-0.50
옥수수	551.75	-1.34	+1.01	USD/BRL	5.2005	+0.51	+0.57
밀	724.50	-0.69	+7.41	USD/CNH	6.4673	+0.04	-0.91
대두	1,319.75	-2.49	-2.92	USD/KRW	1,148.30	-0.23	-0.16
커피	174.85	+1.19	-13.33	USD/KRW NDF1M	1,149.11	-0.19	-0.51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171	-0.68	-7.06	스페인	0.231	-0.10	-4.00
한국	1.895	-1.50	+2.00	포르투갈	0.131	-0.20	-6.10
일본	0.011	-0.60	-0.70	그리스	0.556	-0.60	-6.20
독일	-0.482	+0.50	-4.10	이탈리아	0.565	-0.60	-5.7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